

## 01. 국어과에서 질문이란?

학생1: 선생님, 관점[관점]이 뭐예요?

학생2: 관점[관점]이 아니라 관점[관점].

교사 : 그렇지, 관점[관점]이라고 말해야해.

○○가 질문했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때?

학생3: 인물의 시선 같은 거?

학생4: “옹고집이 어머니를 잘 모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하고 반성하는 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저의 관점인가요?

교사 : 맞아요. ○○이가 옹고집의 행동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이 ○○이의 관점이에요.

학생들과 한 단원의 학습을 시작하면서 단원명을 가지고 충분한 물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이 단원명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되며 나는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자신의 학습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위의 대화의 내용은 5학년 1학기 문학에서 찾는 즐거움 단원을 시작할 때 학생들과 나누는 질문들입니다. 성취기준은 ‘국1652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관점을 이해한다.’입니다. 학습에 관심이 전혀 없어 보이던 한 학생이 관점이라는 낱말의 뜻이 궁금하여 무심히 던진 질문으로 다른 학생들은 단원에서 배우게 될 내용에 집중하게 되고 교사는 한 학생의 질문을 다른 학생에게 연결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어 수업에서 질문은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방법이고 자기 삶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교사는 학생이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을 놓치지 않고 학습에 적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점이라는 낱말의 뜻이 궁금했던 그 학생은 그 질문을 통해 자신의 학습 목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친구들의 생각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수업에 기여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학생의 질문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교사는 그 단원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언급하게 되고 학생들은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 또다시 궁금한 것을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이 학습을 열고 배움을 일으킨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궁금증을 품게 되고, 저절로 궁금한 것을 묻게 됩니다. 슬쩍 내비친 궁금증을 교사가 수업에 끌어들이므로써 그 단원 전체의 학습을 촉진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아무 장치 없이 그냥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교사는 의도적으로 텍스트의 제목에 대해 궁금증을 나누어보도록 하거나 등장인물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눈짓, 몸짓, 혼잣말조차도 그냥 예사로이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 속에 학생들의 말문을 트고 생각을 트는 단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놓쳐서는 안되는 이유는 그들이 교사의 말을 듣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교사 : 이야기의 제목이 뭐지요?

학생 : '멀리 가는 향기'

교사 : 향기가 멀리 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학생1: 꽃향기가 멀리까지 퍼져 나가는 거 같아요.

학생2: 멀리서도 꽃향기를 맡을 수 있는 거?

학생3: 꽃향기를 맡은 내가 꽃에게서 멀어지는 것도 될 것 같아요.

교사 : 그래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학생4: 그럼 그 사람이 그 향기를 가지고 멀리 간다는 말이네요?

교사 : 꽃향기를 맡은 사람이 꽃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향기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5: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겠죠?

학생6: 이미 사라지고 없는데 어떻게 전해 주냐?

교사 : 그러면 '멀리 가는 향기'가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읽어볼까요?

텍스트를 읽기 전 학생들과 물음과 이야기로 제목에 대한 충분한 대화를 나누게 되면 텍스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텍스트를 읽을 때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학생들은 질문을 통해 읽는 목적을 갖게 되어 내용 파악은 물론 텍스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가지며 읽게 된다는 점에서 제목으로 질문하기는 국어과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텍스트를 읽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교사 : 1단원의 단원명이 뭔가요?

학생 : '이야기 속으로'

교사 : 이야기 속으로? 뒤에 어떤 말을 더 넣으면 좋을까요?

학생1: 들어가다?

학생2: 빠져들다?

교사 : 빠져든다는 게 뭐죠?

학생3: 이야기를 읽으라는 거겠죠.

학생4: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이 되어보라는 건가?

학생5: 인물의 입장이 되어서 공감 하는 거 아닐까요?

교사 : 이야기 속 인물이 되어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학생6: 역할극은 어때요?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인물의 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 같아요.

학생7: 인물의 입장이 되면 그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단원명이 완성형이 아닐 때 학생들과 그 다음에 이어질 낱말이 무엇일지 물었습니다. 성취기준은 '1454-2.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 입니다. 이야기의 구성 요소 중 인물에 집중하여 인물의 성격을 생각하며 읽는 활동이 주가 됩니다. 학생들은 질문을 통해 그 단원의 성취기준에 접근하고 학습 내용을 파악하여 학습에 임하게 되면서 성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단원명을 통해 학생들이 역할극으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방법을 찾게 되면서 이미 학습에 대한 의미와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것은 질문을 통해 서만이 가능합니다.

교사 : 오늘 선생님이 읽어줄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이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학생1: 할아버지는 왜 모자에 꽃을 달았나요?

학생2: 다른 양들은 하얀 색인데 왜 혼자 검은색이예요?

교사 : ○○이가 다른 양들은 하얀 색인데 왜 혼자 검은색 이냐구 물어보네요? 어때요?

학생3: 저 하얀 건 양이 아니고 강아지인데....

교사 : ○○아, 이건 강아지... 또 다른 질문 있나요?

학생3: 할아버지, 지팡이가 왜 꼬부라져 있나요?

교사 : 이 인물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되는데 그런 것도 물어보세요.

학생4: 할아버지, 그 지팡이로 양들을 칠거예요?

교사 : 양들을 때릴거냐고 묻는거예요?

학생4: 네.

교사 : ○○이가 할아버지께 지팡이로 양들을 때릴거냐고 물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학생5: 때릴 것 같지는 않아요.

교사 :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학생5: 할아버지 얼굴이 무섭지 않아서요.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에게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는 것으로부터 학생들은 문학작품을 수용할 준비를 합니다. 등장인물은 궁금한 것을 대답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정답이 없는 질문에 더욱 집중하게 되고 다양하면서도 의외의 질문들을 던집니다.

국어과에서 질문은 텍스트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그 도착점은 학생들끼리 질문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교사가 의도를 가지고 핵심 질문을 던져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단원도입 질문을 통해 한 단원의 학습 계획을 세우고, 교사는 학생들의 사소하고 당연한 질문들을 학생끼리 연결시켜주면서 좀 더 풍부한 사고를 촉진하고, 등장인물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하면서 문학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텍스트를 읽고 질문을 하게 되면서 그 텍스트에 대한 공감력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고, 그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통찰하게 됩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답을 찾고 그 질문들이 해답을 만들게 됩니다. 국어과에서의 질문은 학습의 시작이며 그 끝입니다.

## 02. 질문으로 내용 파악하기

국어과 읽기 영역과 문학 영역은 다양한 목적의 글 읽기, 다양한 갈래의 문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영역에서도 질문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게 되지만 국어과에서는 특히 읽기, 문학 영역에서 내용을 파악을 통해 단위수업 학습 목표에 도달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 설득하는 글, 친교 및 정서 표현의 글들 모두가 내용 파악이 선행되어야 다음 단계의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 소설, 극, 수필, 비평 등은 내용 파악 뿐 아니라 인물의 생각이나 마음 상태를 알아야하는 경우가 많고 문학 작품을 읽고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텍스트 표면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은 질문을 통해 끌어내어 느낌을 풍부하게 해야 합니다. 교과서에서는 글이나 문학작품의 내용을 파악하는 질문을 본문에 낱개글로 제시하거나 텍스트 다음 페이지에 질문을 몇 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텍스트를 읽은

후 그 질문을 해결하는 것으로 내용을 파악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글이나 문학작품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내용 파악이 충분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다음 단계 학습에서 머뭇거리게 되거나 느낌이나 생각을 풍부하게 표현하기 힘들게 됩니다.

4학년 1학기 1단원에서는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의 구성 요소(인물, 사건, 배경)에 대해 말하는 학습을 합니다. 이야기 구성요소(인물, 사건, 배경)에 대한 학습을 한 후 텍스트를 읽고 인물, 사건, 배경이 되는 낱말들을 9칸에 쓰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짝과 함께 그 낱말이 정답이 되도록 질문을 만들어 제시하면서 빙고 놀이를 한 것입니다.

은선	고양이	길모퉁이
미나	토요일 오후	은선 언니
동물 병원	우유	비밀 봉지

- ▶은선이는 언제 고양이를 만났나요?
- ▶새끼고양이 치료를 부탁하려고 은선이가 처음으로 간 곳은 어디인가요?
- ▶고양이에게 은선이가 준 것은 무엇입니까?
- ▶은선이가 도움을 청했을 때 거절한 친구는?

학생들은 처음에 질문을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무엇을 어떻게 질문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해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단원은 이야기 구성요소를 아는 학습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낱말이 정답이 되는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여 쉽게 질문을 하고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나 이야기를 읽고 인물의 생각을 자신과 비교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질문으로 다양한 생각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5학년 1학기 1단원에 나오는 ‘ 함께 쓰는 우산 ’이라는 시를 읽고 질문을 만들어 짝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활동을 해 보았습니다. 시를 충분히 읽고 질문을 10개 만들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질문 만들기를 할 때 학생들은 개인차를 보입니다. 짝과 함께 만들어 보게 하고, 교사가 개입하여 만들어보면서 차차 질문 만들기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시의 내용을 묻는 질문뿐만 아니라 시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인물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는 질문들, 자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는 질문까지 학생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교과서에는 시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비 오는 날에 두 인물이 한 행동은 무엇인지, “우산 밖/ 반은 비 맞고// 우산 속/ 반은 안 맞고”라는 표현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두 인물의 상황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교과서 세 개의 질문으로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도 없고 인물의 생각을 알아보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 수업을 하면서 마음에 남는 한 학생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집 방향이 같았을까?” 라는 질문에 어떤 한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 방향이 달랐지만 친구의 집까지 바래다주고 집으로 왔을 것 같습니다.” 또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있는 말이 있습니다. 수업을 다 마칠 때쯤 한 학생이 우산 밖으로 나와 비를 맞은쪽과 우산 속 비를 맞지 않은 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 이 쪽은 물에 젖고, 이쪽은 우정에 젖고” 학생들은 질문을 통해 내용 파악도

했지만 인물의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질문을 가지고 시 수업을 하는 것은 시에 나오는 인물의 마음까지 알게 되어 학생들은 시 한 편을 오롯이 가슴에 담습니다. 질문은 학생들 마음 속 문학적 감성을 깨우는 데 큰 몫을 합니다.

4학년 1학기 '10. 감동을 표현해요' 단원에 나오는 '웃음총'을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활동으로 자신만의 웃음총을 디자인 하였습니다. 웃음과 총이라는 다소 생소하고 상반되는 이미지를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생각이 궁금하여 질문을 던졌더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습니다.

교사 : 총 앞에 웃음이라는 말을 넣어 웃음총이라고 했네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학생1: 총은 무섭고 맞으면 죽는데 그 앞에 웃음이라는 말이 있어서  
뭔가 그 총의 총알은 웃음일 것 같습니다.

학생2: 웃음총을 쏘면 사람들이 많이 웃을 것 같습니다.

학생3: 웃음과 총이 합쳐지니까 총이 무섭다는 생각이 안듭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질문에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고 텍스트의 내용에 궁금증을 가지게 된 듯했습니다. 역할을 나누어 텍스트를 읽으면서 자신만의 웃음총을 디자인해서 표현하고 그 웃음총을 누구에게 쓰고 싶은지 생각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웃음총을 표현하고 그것을 쓰고 싶은 사람에게 쪽지글을 남겼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궁금해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늘 염두에 두고 수업에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디자인한 웃음총을 누구에게 쓰고 싶은가요? 그 이유는 뭐죠?” 교사는 늘 학생에게 질문을 가지고 접근해야하고 학생 역시 질문을 가지고 교사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학생들이 텍스트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어떤 웃음총을 디자인하게 될 지 무척 궁금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또한 그 웃음총을 쏘게 될 대상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건딜 수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부터 웃음총을 쏘 대상을 찾아 웃음총을 발사하기까지 일관되고 연계성이 있는 교수 설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03. 친구 이야기를 잘 듣는 방법

교사 : (삽화를 가리키며) 요 동생이 있잖아요. 동생의 마음은 어떨지 이야기해 볼까?

학생1: 오빠에게 미안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오빠의 장난감을 부러뜨렸으니까요.

교사 : ○○이는 왜 박수 쳤어요.

학생2: 의견이 좋은 것 같아서...

학생3: 더 악오르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학생4: 저는 집 안에서 첫째예요. 친척 동생들이 오면 제가 돌보고 같이 놀아주는 일이 많은데 동생들은 별것 아닌 일을 어른들께 자꾸 일러요. 저 시에 나오는 오빠도 저처럼 힘들 것 같아요.

교사 : ○○이는 어딜 가든 첫째라 오빠의 기분을 정말 잘 알 수 있었다고 하네요.

첫째가 아닌 사람은 어때요?

학생5: 저는 둘째인데 두 명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어요.

저희 집도 동생 때문에 오빠가 혼나는 일이 많거든요.

교사 : 그렇구나.

학생들은 친구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합니다. 친구가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이 무엇을 말할까를 생각하느라 귀담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정해 놓고 그 답이 나올 때까지 ‘또 누구 없어요?’를 외칩니다. 학생들이 친구 이야기를 잘 듣게 하려면 교사의 듣는 태도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교사가 먼저 학생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의문이 있을 때 되묻는다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친구의 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묻게 해야 합니다. 정말 궁금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아는 것을 확인하려 들지 말고 그 학생이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질문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알아가는 경험을 주기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친구 이야기에서 실마리를 찾도록 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반응을 한 학생에게 그 이유를 묻는 것은 너의 듣기 태도가 좋다는 암시를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학생들의 반응을 유도하기에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박수를 친 친구에게 묻습니다. “○○이는 왜 박수 쳤어요?”

교사는 학생들의 말뿐만 아니라 비언어적·반언어적인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친구가 말을 했는데 다른 학생이 고개를 가우뚱하거나 입술을 꺾 내밀었다면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그 행동을 수업 상황으로 끌어들이고 그 학생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고개를 가우뚱한 이유가 있어요?”

교사들은 학생들이 발표를 하는 동안 발표 내용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잘 듣지 않는 다른 학생들을 보고 주의를 주거나 다음 활동을 준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 가까이 가서 그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질문을 갖게 되고 그 질문을 발표한 학생이나 다른 학생에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내 말을 잘 들어준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학생들은 궁금한 점이 있어도 질문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업 상황에 몰입할 수도 없게 됩니다. “네 생각은 그렇구나.”, “그랬겠구나.”

교사 : 시나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이야기 해봐.

학생1: 재미있다.

교사 : 재미있다, 재미있다.

학생2: 시의 감정 아닌가?

교사 : 시의 감정을 알아서 너에게 얻어지는 게 뭐야?

학생3: 누군가와 만약에 싸웠을 때 마음이 그냥 안 좋고 느낌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럴 때 자신이란 닮은 시를 읽어보면 자기 친구가 어떤 느낌이었을지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감동도 받을 수 있어요.

교사 : 어떤 것에 감동을 받게 되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와요?

학생4: 마음이 울려요.

학생5: 말투의 변화

학생6: 말과 행동

교사 : 마음이 울리고 말투가 바뀌면서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말인가요?

학생 : 네

교사 : 어떤 쪽으로 달라지지요?

학생7: 이쁜 쪽

교사, 학생: 웃음

교사 : 바로 그런거야. 시나 이야기를 접하는 이유가 이뻐질려구, 어디가 이뻐질려구?

학생8: 말씨, 마음과 행동.

학생9: 얼굴.

교사 : 말씨와 마음과 행동, 그런데 ㅇㅇ가 얼굴이라고 했어요.  
마음과 행동이 예뻐지면 얼굴도 예뻐지나요?

학생10: 예뻐보여요.

교사 : 맞아, 예뻐보여요. 못생긴 얼굴도 예뻐보이지요? 못생긴 얼굴이 있을 수 없지.  
시나 이야기를 읽고 느낌과 감동을 받는 게 우리 생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지. 너희들도 그걸 느껴요?

시나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시의 내용과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시를 바꾸어 쓰거나 시에 나오는 인물과 닮은 사람을 주변에서 찾아 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활동을 하기 전 학생들과 시나 이야기를 읽는 이유에 대한 물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의 말을 놓치지 않고 들어서 서로 연결시켜주고 학생들이 자신의 말로 생각을 표현하기를 기다려주면서 학생들 스스로가 친구들의 말을 듣고 단서를 찾아 생각을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물음만 귀기울여 듣는다면 시나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공감하고 시에 나오는 인물의 마음까지도 알게 된다는 엄청난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말이 수업 안에 녹아드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차차 다른 친구들의 말을 귀기울여 듣게 됩니다. 위의 수업 내용은 교사의 의도된 경청이 학생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학생의 어떤 말도 놓치지 않고 수업 안에 끌어들이어서 자신이 수업에 기여했다는 자부심과 결론을 도출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동시에 경험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사의 경청입니다.